

CJ 대한통운, 新코일 컨테이너로 철강물류 혁신

작업시간 3분의 1로 줄어...안전성도 대폭 향상

2014년 04월 08일 (화) 11:21:48

이경성 기자 ✉bluestone@knews.co.kr



△CJ 대한통운은 수출용 철 코일 제품 전용 '코일 컨테이너' 350 대를 현장에 도입했다. 새 장비 도입으로 화물 안전성과 작업 생산성이 향상돼 수출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(사진제공=CJ 대한통운)

CJ 대한통운은 국내 최초로 수출용 철 코일(Steel Coil) 제품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코일 컨테이너 350 대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.

코일 컨테이너는 일반 화물용 컨테이너에 비해 30% 두꺼운 재질을 사용해 철 코일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, 컨테이너 하부를 요람(Cradle) 형태로 만들어 철 코일이 자연스럽게 안기는 형태로 실릴 수 있게 제작됐다.

또한 코일 제품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부는 고무 재질로 제작됐으며, 컨테이너 상부가 여닫히는 오픈 탑(Open-Top) 형식이어서 적입, 적출 작업이 편리하다.

기존에는 철 코일제품을 수출할 때 화물선에 그대로 쌓는 형태로 선적하거나 일반 컨테이너에 넣어서 선적했었다. 그러나 항해 중 충격으로 손상이 있을 수 있는 등 안전성 문제가 있어

선사들이 취급을 기피하거나 특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.

CJ 대한통운은 이번 코일 컨테이너 도입으로 이러한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의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. 안전성이 향상되면서 파손율이 혁신적으로 감소했고, 15~30 분 이상 걸리던 적입 작업 시간도 5~10 분으로 대폭 줄었다.



△코일 컨테이너를 이용해 작업하는 모습(사진제공=CJ 대한통운)

불필요한 작업 단계를 줄일 수 있게 되면서 물류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, 작업시간 단축과 화물 납기 정확도 향상으로 제조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됐다. CJ 대한통운은 특히 인력과 장비도 25% 덜 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작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.

CJ 대한통운 관계자는 “현재 약 350 대 정도의 코일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선사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,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”라며 “기존 물류에 발상을 전환해 코일 컨테이너 물류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발했으며, 앞으로도 이 같은 기술과 프로세스 혁신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물류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